

GYEONGNAM INVESTMENT
BUSINESS AGENCY



경남
산업·경제이슈



민선 8기 경남경제 성과와 도약을 위한 과제

경남 산업·경제이슈 CONTENTS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제분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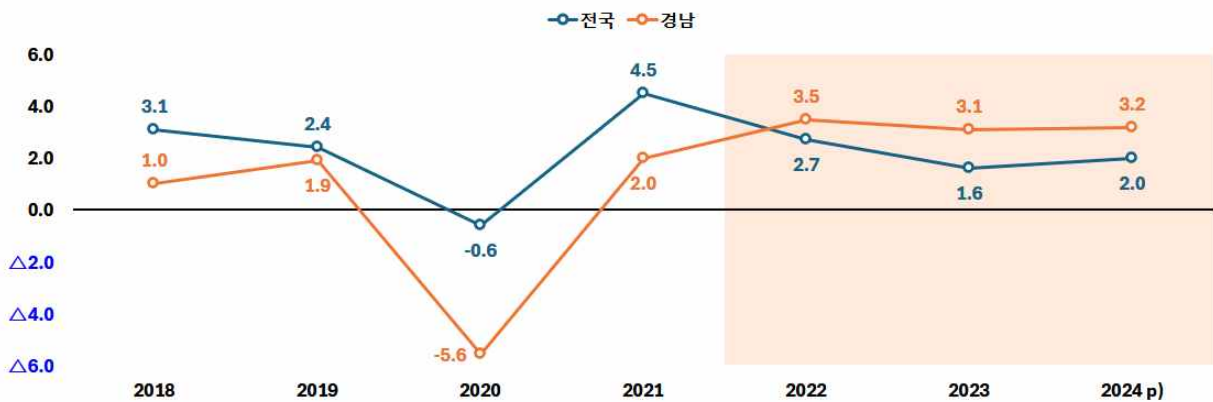
1. 민선 8기 경남경제 주요지표	1
2. 민선 8기 주요 정책 성과	6
3. 경남 경제의 주요 현안	10
4. 경남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	11

01 민선 8기 경남경제 주요 지표

가. 지역내총생산(실질)

- 민선 8기('22년~'24년) 동안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
- 경남은 전국에 비해 '21년까지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2년부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 안정적인 성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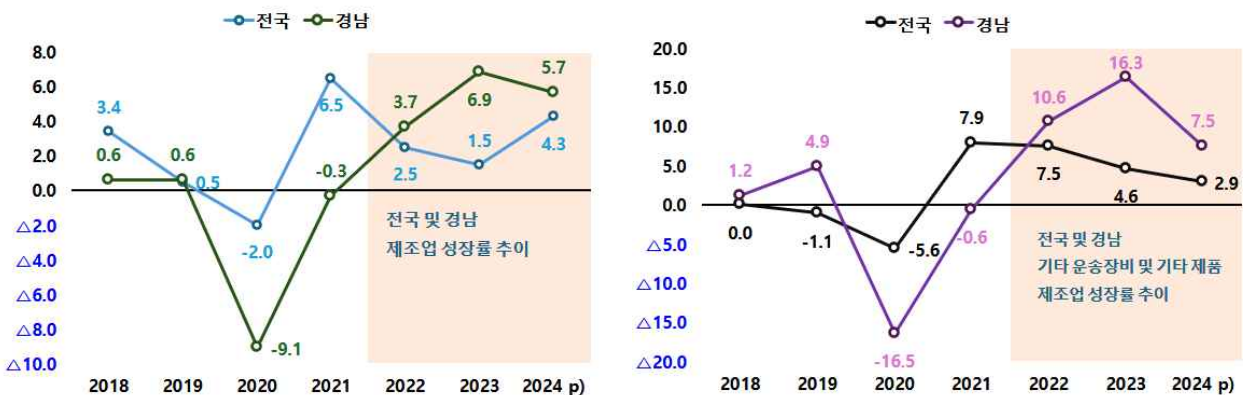
민선 8기 전국 및 경남 경제 성장률 추이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민계정; 지역소득(실질기준)

- '22년 이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의 주요 동인은 조선업 중심의 제조업 호황
 - 경남 제조업은 '20~'21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22년 3.7% ⇒ '23년 6.9% ⇒ '24년 5.7%로 경남 경제성장을 견인
 - 제조업 중 성장의 기여도가 높은 부문은 조선업을 포함하는 '기타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으로 '21년 △0.6% ⇒ '22년 10.6%로 전환 이후 안정적인 성장 추세

전국 및 경남 전체 제조업 성장률 및 주요 제조업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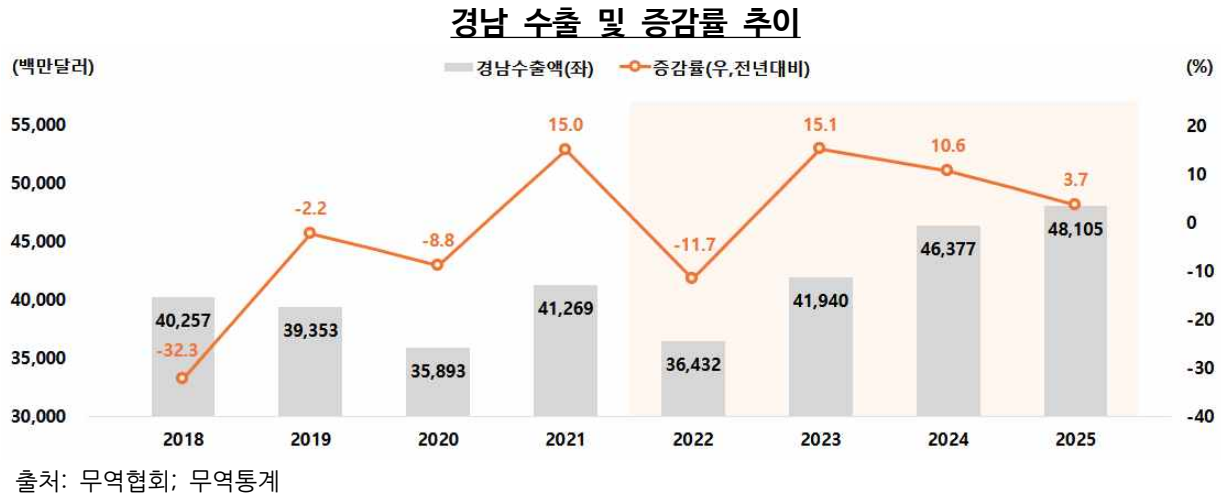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민계정; 지역소득(실질 기준)

나.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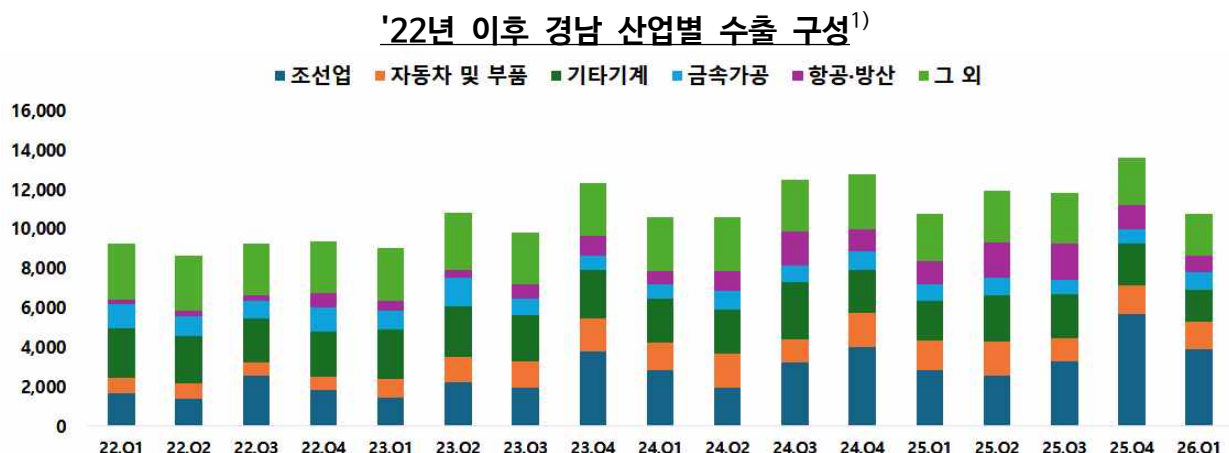
■ 민선 8기 수출은 '2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전쟁·러·우 전쟁 등 다양한 국제 이슈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하여, '22년 10월부터 '26년 7월까지 4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 민선 8기 중 수출 증가는 조선, 항공·방산, 자동차가 주도, 기계·금속가공 등은 다소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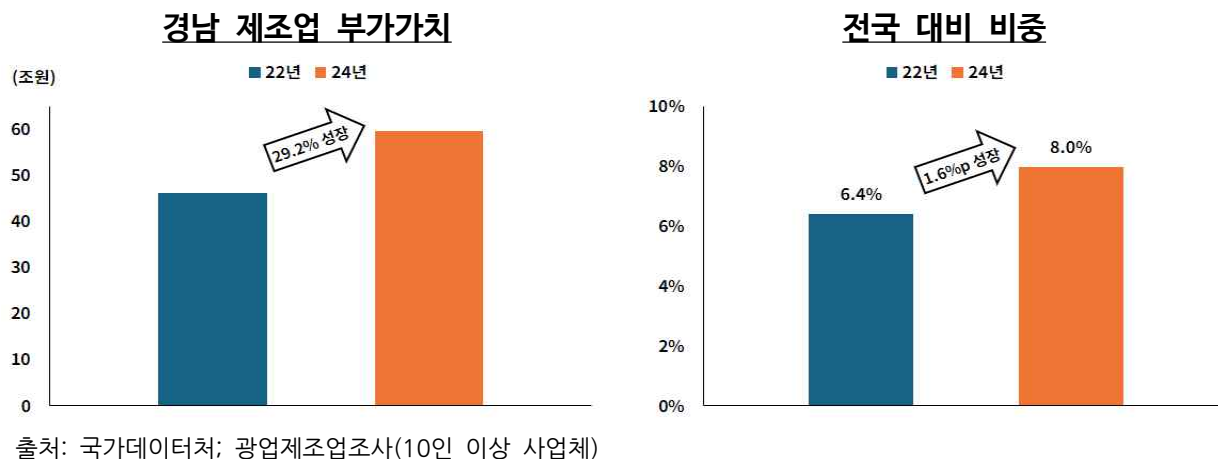
-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에 힘입어 '22년 74.1억 달러 ⇒ '25년 143.9억 달러로 94.3% 증가
- 항공·방산 수출은 K-방산 호조 속에 '22년 14.5억 달러 ⇒ '25년 60.5억 달러로 318% 증가
- 자동차 수출도 '23년부터 GM 창원 공장의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양산을 개시하며 수출 주도
- 이에 따라 조선, 항공·방산, 자동차 등 3대 부문이 경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년 32.4% ⇒ '25년 54.6%로 확대
- 반면, 기타기계 수출은 '22년 94.2억 달러 ⇒ '25년 87.6억 달러, 금속가공 수출은 '22년 43.5억 달러 ⇒ '25년 31.0억 달러로 조정을 보임
- 주력 부문의 고성장 속에 부문 간 흐름이 차별화, 기계·금속가공의 재도약이 다음 과제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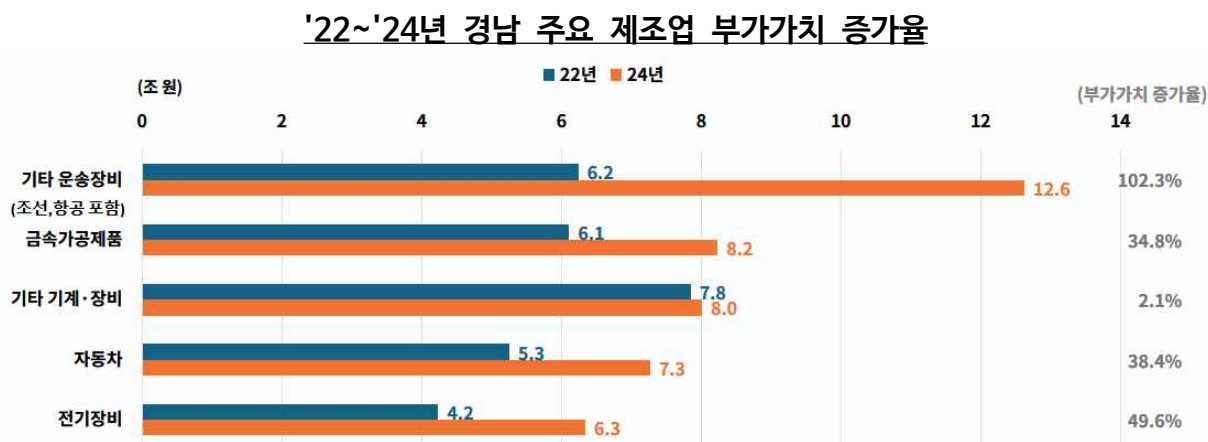
주: 1) '26.6월 시행된 MTI 신분류는 '22년 이후에만 적용되어 과거 자료와 직접 비교 불가
출처: 무역협회; 무역통계

다. 제조업 부가가치

- 민선 8기('22~'24) 중 경남 제조업 부가가치는 큰 폭으로 증가, 전국 대비 높은 성장세
 - 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 사업체)에 의하면, 경남 제조업 부가가치는 '22년 46.2조 원 ⇒ '24년 59.6조 원으로 29.2% 증가,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3.7%)을 크게 상회함
 -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도 '22년 6.4% ⇒ '24년 8.0%로 상승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는 조선·항공 등 수출 주도 부문이 견인
 - 조선·항공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부가가치는 '22년 6.2조 원 ⇒ '24년 12.6조 원으로 102.3% 증가하여 도내 1위 산업으로 부상, 제조업 내 비중도 '22년 13.5% ⇒ '24년 21.2%로 확대
 - 이는 수출 증가를 조선, 항공·방산이 주도한 흐름과 부합하는 것으로, 수출 호조가 도내 생산·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전기장비(49.6%), 자동차(38.4%), 금속가공제품(34.8%)도 부가가치가 큰 폭 증가
 - 기타 운송장비를 포함한 5대 주력 부문의 부가가치는 '24년 42.5조 원으로 제조업 전체의 71.3%를 차지('22년 64.3%)하여, 주력산업이 도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구조가 한층 뚜렷해짐
 - 기타 기계 및 장비는 같은 기간 2.1%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였으며, 이는 최근 기계류 수출 흐름과 유사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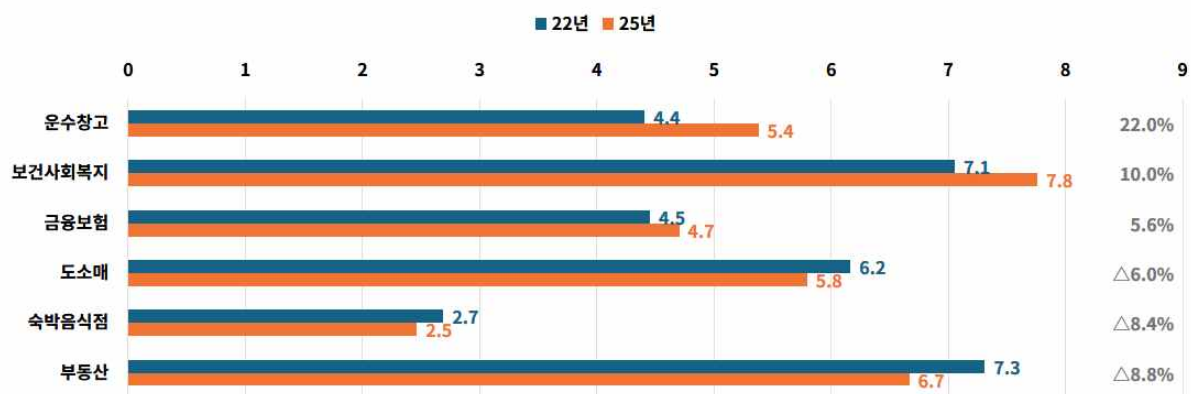


라. 서비스업 부가가치

■ 민선 8기 서비스업은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성장으로 경제 전반을 지지

- 분기별 GRDP에 의하면, 민선 8기 중 경남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전년동기비 평균 1.2% 성장해 제조업(3.5%)보다 완만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성장률 변동성은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경기변동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보임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완만한 성장 속 업종별 격차가 나타남
 - 운수·창고업(22.0%), 보건·사회복지업(10.0%), 금융·보험업(5.6%)이 증가를 보였음
 - 도소매업(△6.0%), 숙박·음식점업(△8.4%), 부동산업(△8.8%)은 감소를 보였음

'22~'25년 경남 주요 서비스업 GRDP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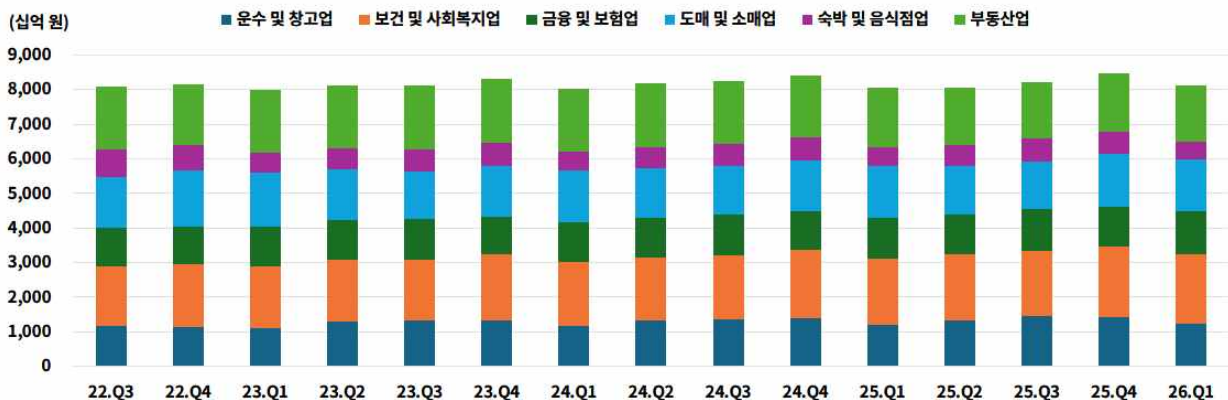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분기별 GRDP(실험적 통계, 실질 기준)

■ 다만 '25년 중 일시 위축되며 내수 회복 지연을 시사

- '25.2분기(△1.4%)와 3분기(△0.1%) 연속 감소 후 4분기(0.5%)와 '26.1분기(1.9%)에 반등
 - 같은 기간 제조업·수출이 호조를 이어간 것과 대비되어, 수출 부문과 내수·민생 부문 간 회복 속도의 차이가 나타남

경남 주요 서비스업 부가가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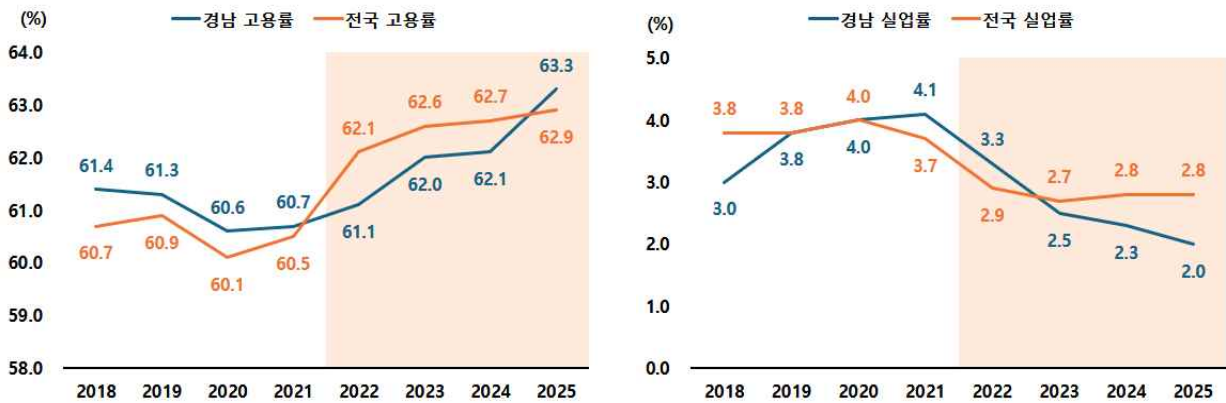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분기별 GRDP(실험적 통계, 실질 기준)

마. 고용구조

- 민선 8기 경남 고용은 뚜렷한 양적 개선을 보이며 '25년 전국 평균을 상회
 - 경남 고용률은 '18~'19년 61%대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20~'21년 60.6%까지 하락했으나, 민선 8기 들어 '23년 62.0%, '25년 63.3%로 상승
 - '25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62.9%)을 0.4%p 상회해 '22~'24년의 열위를 해소
 - 실업률은 '21년 4.1%에서 지속 하락해 '25년 2.0%로 '1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 같은 해 전국 평균(2.8%)보다 0.8%p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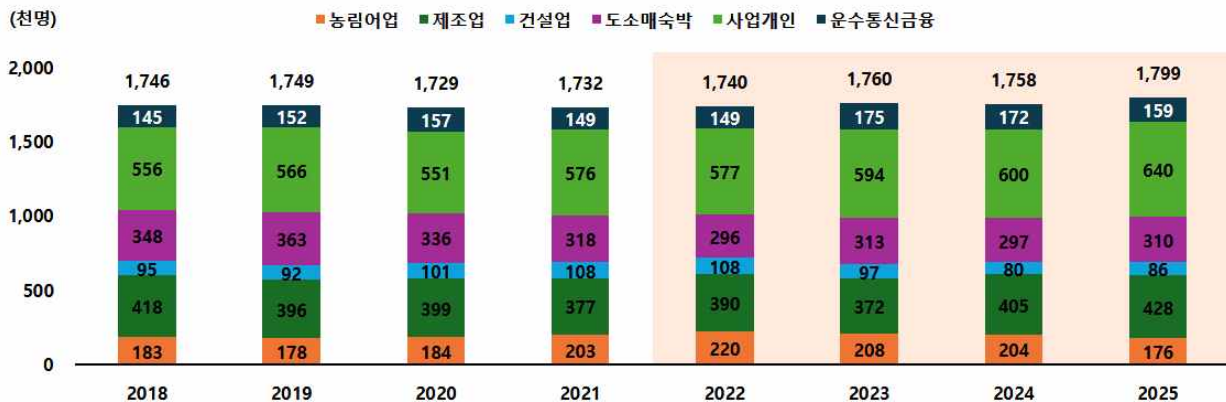
경남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이 민선 8기 중 반등, 도소매·숙박 부문 취업자는 정체
 - 제조업 취업자는 '21년 37.7만 명을 저점으로 '24년 40.5만 명, '25년 42.8만 명까지 증가
 - 조선·방산 등 주력산업의 생산 확대와 인력 확충*이 반영된 결과, 저점 대비 5.1만 명 늘어 '18년 수준(41.8만 명)을 넘어섬
 - * 조선업 외국인력 별도 쿼터 신설·확대 등 비자제도 개선이 포함됨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는 '21년 57.6만 명 ⇒ '25년 64.0만 명으로 6.4만 명 증가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5년 31.0만 명에 그쳐 '18년 수준(34.8만 명)을 여전히 하회

경남 산업별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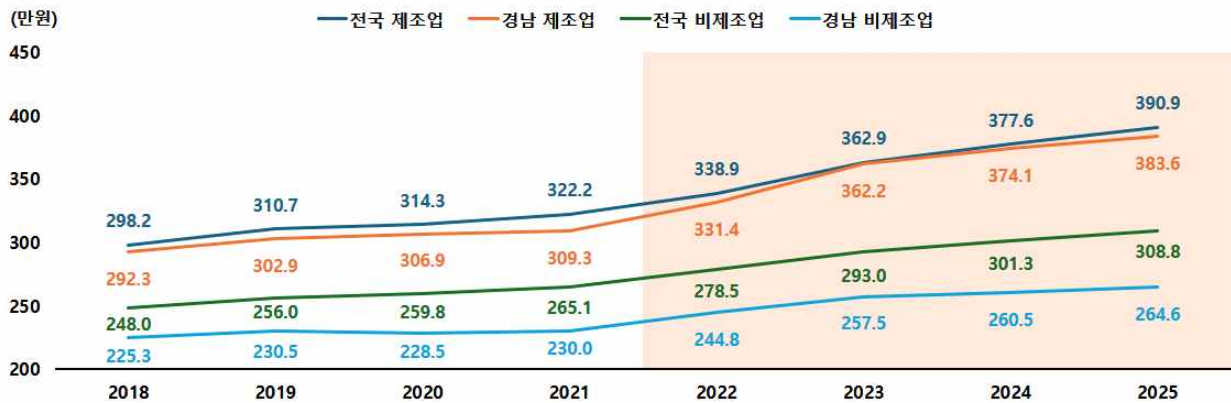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의 질은 제조업 부문에서 뚜렷하게 개선, 비제조업 부문은 해석에 주의할 필요

-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의하면, 경남 제조업 평균임금은 '18년 292.3만 원 ⇒ '25년 383.6만 원으로 31.2% 상승
 - 특히 '21년 309.3만 원 ⇒ '22년 331.4만 원으로 1년 사이 7.1% 상승한 데 이어, 이후 3년 간 15.8% 상승해 전국 평균과의 격차 감소
- 비제조업 부문의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수도권과 경남의 구조적 차이를 감안하여 해석에 주의할 필요

전국 및 경남 월 평균 임금 추이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02 민선 8기 주요 정책 성과

가. 주력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 견인

- 민선 8기 경남 경제성장은 조선·방산·항공우주·원전 등 주력 제조업의 동반 호황이 견인
 - 제조업 성장률('22년 3.7% ⇒ '23년 6.9% ⇒ '24년 5.7%)과 부가가치 증가('22년 46.2조 원 ⇒ '24년 59.6조 원, +29.2%)는 도내 주력 4대 부문의 실적 개선이 집약된 결과
 - 특히 조선·항공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가 도내 1위 산업으로 부상(부가가치 비중 13.5% ⇒ 21.2%)하며, 주력 제조업의 성과가 경제성장을 견인
- (조선) 양대 조선사의 고부가가치 선별 수주가 실적 개선 주도, 협력사 회복 동반
 - 한화오션은 '25년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LNG 운반선 등 100.5억 달러를 수주하며 전년 실적(89.8억 달러)을 상회하였고, 삼성중공업도 LNG 운반선·셔틀탱커 등 79억 달러 규모를 수주
 -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어 삼성중공업은 '25년 매출 10.7조 원, 영업이익 8,622억 원을 기록했으며, 한화오션은 '25년 매출 12.7조 원, 영업이익 1.1조 원 기록
 - 가동률도 '25년 평균 한화오션 100.5%, 삼성중공업 111%로 사실상 최대 상태에 진입하여, 창원·통영·고성 지역의 블록·기자재·도장·용접·물류 협력사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 발생

- '25년 글로벌 발주는 전년 대비 26.5% 감소했으나 한국의 수주 점유율은 14.0% ⇒ 20.6%로 상승해 경남 조선업의 호조는 업황 회복보다는 고부가가치 선별 수주에 기인했음을 시사

■ (방위산업) 창원·사천 방산 클러스터가 K-방산 수출 확대의 생산 거점으로 부상

- 도내 방산기업이 밀집한 창원·사천이 주요 거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K9 2차 실행계약 및 이집트·호주 납품 등에 힘입어 '26.2분기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1.4조 원(최초로 분기 1조 원 돌파)을 기록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6.2분기 기준 지상방산 부문 수주잔고는 약 38조 3,000억 원으로, 창원 사업장의 중장기 생산 물량이 확보된 상태
- 방산 4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KAI·현대로템·LIG넥스원)의 '25년 영업이익은 4조 6,832억 원, 방산 부문 수주잔고는 최초로 100조 원대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들 중 3개사의 생산기지가 위치한 경남이 수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성과는 항공·방산 수출 증가('22년 14.5억 달러 ⇒ '25년 60.5억 달러, +318%)로 확인됨

■ (우주항공) KAI의 생산 역량 확장과 우주항공청 개청이 결합해 산업 중심지로 부상

- (기업 성과) KAI는 사천을 본거지로 KF-21 체계개발·양산과 완제기 수출을 추진하는 한편, '26.7월 산업통상부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방산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953억 원 규모)되어 무인기 플랫폼·피지컬 AI 검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 항공 부품·소재 국산화가 진전되며 사천·진주 일대 협력업체의 수주 기반도 확대
- (제도 기반) '24.5월 사천에 우주항공청(KASA)이 개청하여,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최대 집적지(70% 이상)인 경남이 우주경제 컨트롤타워를 유치
 - 도는 '글로벌 우주항공수도 경남'을 비전으로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에 8.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이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병행 추진
- (인프라) '26.3월에는 총사업비 1,800억 원, 30만㎡ 규모의 사천 항공 MRO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기업의 생산 역량과 결합한 개발·생산·정비 전주기 생태계의 기반 마련

■ (원전·SMR)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공장을 중심으로 원전 생태계가 회복되고 차세대 제조 거점으로 도약

- (기업 성과) 두산에너지빌리티의 발전 기자재(원자력 등) 부문 매출은 '22년 7.1조 원 ⇒ '25년 7.8조 원으로 증가, 수주잔고는 '22년 말 약 13조원 ⇒ '25년 말 약 23조 원으로 77% 증가
 - '25년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5조 6,000억 원 규모)가 '26년부터 매출에 반영
- (지역 파급) 원전 생태계 회복은 도내 420여 개 협력사의 일감 회복으로 이어져,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부품과 기계가공·제관·열처리 등을 협력사에 발주
 - 창원 소재 원전 기자재 협력사들이 인증 유지와 신규 채용에 나서는 등 실물 회복이 나타남
- (설비 투자) '25.12월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창원공장에 SMR 전용공장 신축을 포함한 약 8,068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결정하여, 차세대 원전 제조 거점의 역할 강화
- (국책사업)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되어 '26년부터 '31년까지 총 2,569억 원(국비 1,010억 원)이 투입될 예정

- 초대형 일체화 성형 장비(PM-HIP) 구축, 전자빔용접(EBW), 적층제조(3D 프린팅) 기술개발을 통해 SMR 소재 제작 기간을 평균 14개월에서 3개월로 약 80% 단축할 것으로 기대
-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주기기 제작이 가능한 두산에너지빌리티를 중심으로 집적된 경남의 공급망 강점과 결합하여, '35년 최대 620조 원(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SMR 시장 선점 경쟁의 토대 마련

■ (피지컬 AI) 1조 원 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로 제조업 AI 전환의 거점 확보

- '25.8월, '피지컬 AI 범용 파운데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이 정부 예타 면제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확정되어, '26년부터 '30년까지 총 1조 원(국비 6,000억 원, 민자 4,000억 원) 투입 예정
- 정부가 예타를 면제한 4개 시도(경남·전북·광주·대구) AI 혁신거점 사업 중 경남은 유일하게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민자만으로 추진하게 되어, 국비·민자 중심의 사업 재원 확보
- 실증에는 도내 8개 제조기업 외에 구글클라우드코리아·서울대·한국전자통신연구원·경남대·경남테크노파크 등 25개 기관·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
- 기 확보한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사업(국비 150억 원), 피지컬 AI 시범사업(국비 197억 원)과 연계하여 기계·조선·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지능형 전환을 선도할 기반 마련

주력 4대 부문 민선 8기 실적 요약

부문	핵심 실적	지역 파급
조선	한화오션 수주 100.5억 달러, 삼성중공업 79억 달러('25년), 가동률 100~111%	창원·통영·고성 협력사 확산
방위산업	방산 4사 영업이익 4조 6,832억 원('25년, 사상 최대)	창원·사천 생산 거점
우주항공	우주항공청 개청('24.5월), 항공 MRO 산단 준공(1,800억 원)	사천·진주 협력사 수주 기반 확대
원전·SMR	'25년 두산에너지빌리티 수주잔고 23조 원, SMR 전용공장 등 8,068억 원 투자	도내 420여 개 협력사 일감 회복

출처: 각사 공시 및 언론 보도

나. 역대 최대 투자유치 달성

■ 적극적 유치활동으로 민선 8기 중 620개 기업의 투자 확보

- 확보된 투자액은 37조 3,267억 원, 56,084개의 일자리 창출

민선 8기 경남 투자 유치 실적 추이

기간	기업 수	투자금액(억원)	고용인원(명)
'22.7~12월	78	35,528	7,549
'23년	164	92,757	28,857
'24년	171	95,762	12,236
'25년	129	104,020	5,094
'26.1~6월	78	45,200	2,348
누계	620	373,267	56,084

출처 : 경상남도

주 : 투자유치 전담기관 운영이 시작된 '22.7월 이후 실적이며, '26년은 6월 말 기준. 연도별 실적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력·전략산업 전 분야에 걸친 대형 투자 유치로 미래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반 확충
 - **(AI·데이터센터)** '25.4월 태왕디엔디와 1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 사천에 초거대 AI 데이터센터를 건립
 - 1단계는 '26년 상반기 착공·'28년 완료 예정이며, 정보통신 분야 120여 개 일자리 창출 기대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입지 경쟁력을 선점한 사례
 - **(조선·해양)** '25.7월 한화오션은 거제사업장에 7,22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부유식 도크(FD-6)를 신규 도입하는 등 해양 프로젝트·특수선 제조 설비를 확장
 - * 같은 협약(총 1조 4,661억 원, 신규 고용 528명)에는 아레프즈거제(거제), 캠프(사천 우주항공국가산단, 101억 원)·레디로버스트머신(김해, 140억 원·부산 본사 이전) 등 4개 기업이 참여
 - **(미래 모빌리티)** '24.9월 로만시스·범한퓨얼셀·범한자동차·삼현 4개사와 총 5,368억 원, 신규 고용 750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
 - 범한자동차의 서울 본사 창원 이전 등 수소 기반 모빌리티 기업 집적이 진전되었고, 이를 앵커로 '24.12월 창원국가산단 일원(59만㎡)이 미래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 * 특구에는 앵커기업 등 11개사가 참여해 총 6,948억 원 투자, 신규 고용 982명 목표
 - **(우주항공)** 우주항공국가산단의 1차 준공(진주지구, '25.8월)과 함께 기업 투자가 본격화
 - '25.10월 하나에어로다이내믹스 등 3개사와 500억 원(신규 고용 90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
 - 벨 텍스트론(Bell Textron)의 국내 1차 협력사인 하나에어로다이내믹스는 '26.1월 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협약이 실제 투자 집행으로 진전
 - **(주력산업 고도화)** '25.2월에는 삼천리기계(공작기계 주변기기, 인천 본사)·월드테크(조선·플랜트·해상풍력 기자재) 등 주력산업 선도기업과 5,05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계·조선 기반의 고도화 투자도 병행
 - **(외국인투자)** 셰플러코리아의 E-모빌리티 핵심부품 공급기지 구축('23.3월), 인도 올카고그룹의 진해 웅동배후단지 물류터미널 투자('25.4월) 등 글로벌 기업의 생산·물류 거점 투자도 지속
 - * 민선 8기 중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매년 유치가 이어져 '26년 상반기에도 26개사가 신규 신고
 - 이러한 대형 투자는 조선·방산·원전 등 기존 주력의 호황과 결합해, AI 인프라·에너지·모빌리티·우주항공으로 이어지는 미래산업 포트폴리오를 실물 투자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민선 8기 주요 대형 투자유치 사례

시기	기업	지역	협약 규모	분야
'24.9월	로만시스 등 4개사	창원	5,368억 원	미래 모빌리티
'25.2월	삼천리기계 등	창원 등	5,050억 원	주력산업 고도화
'25.4월	태왕디엔디 등 3개사	사천 등	1조 5,200억 원	AI 데이터센터
'25.7월	한화오션 등 4개사	거제 등	1조 4,661억 원	조선·해양
'25.10월	하나에어로다이내믹스 등 3개사	진주	500억 원	우주항공

출처: 경상남도(협약 기준)

다. 제도 개선: 주력산업의 걸림돌 해소

- **도정 건의가 법령 제·개정과 정부 정책에 대거 반영되며 주력산업의 성장 기반을 정비**
 - **(수출금융)**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대형 수주가 이어지는 도내 방산·조선 기업의 수출금융 기반을 확충함
 - **(세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분야가 신설되어 방산기업의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혜택 기반이 마련되었고, 도내 기업 보유 메모리플립칩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
 - **(인력)** 조선업 외국인력 별도 쿼터 신설·확대('23년 400명 ⇒ '24년 1,600명) 등 비자제도 개선으로 조선업 인력난을 완화
 - **(입법·국가계획)**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등 우주항공 관련 입법 성과에 이어, SMR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및 SMR 건설이 반영됨

03 경남경제의 주요 현안

가. 부문 간 성장 격차: 주력 3대 부문 밖의 조정 국면

- **조선·자동차·방산 고성장의 이면에서 기계·금속가공은 조정 국면 지속**
 - '22~'24년 광업제조업조사에서, 경남 제조업 전반의 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동안 기타 기계·장비 부문은 상대적으로 정체
 - 수출 역시 기타기계·금속가공 모두 '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특히 금속가공의 낙폭이 두드러짐
- **특정 부문 의존 심화는 경기 변동 취약성을 확대**
 - 수출의 절반 이상이 조선·자동차·방산에 쏠린 구조는 호황기의 성과인 동시에, 업황 사이클 전환 시 지역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 기계·금속가공은 도내 사업체·고용 기반이 가장 넓은 부문인 만큼, 제조 AI 접목을 통한 경쟁력 회복이 성장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저변 안정의 관건

나. 민생·내수 회복 지연: 수출 호조와 온도차

- **수출·제조업 호조에도 소비·자영업 중심의 내수 회복은 지연**
 - 서비스업 생산은 '25.2~3분기 연속 감소 후 완만한 반등에 그쳐 제조업·수출의 활발한 업황과 비교할 때 뚜렷한 온도차
 - '26.1분기 경남 일반상가 1층 공실률 8.1%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4.3분기 이후 최고치,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잔액 2조 7,435억 원으로 설립 이후 최대

- '24년 기준, 경남 자영업자 비중은 취업자의 24.3%로 전국(19.5%)보다 높으나 1인당 소득은 전국의 81% 수준, 대출 비중은 39.5%로 전국(34.3%) 상회
- '25년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경남 지역내 업종별 평균 임금은 숙박·음식점업 169.6만 원, 도소매업 257.7만 원으로 제조업(383.6만 원)과의 격차가 크고, 민선 8기 중 상승률도 각각 5.4%, 10.4%에 그쳐 제조업(15.8%)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임
- 수출 부문의 성과가 소비·자영업으로 파급되는 경로(임금·정주·역내 소비)의 구축 여부가 향후 민생 회복 속도를 좌우할 전망

다. 인구·인력 구조: 반등의 조짐과 생산인력 제약의 병존

■ 인구 지표는 반등 조짐

- '25년 경남의 시도 간 순유출은 7,577명으로 '22년(18,547명) 대비 59.1% 감소하였으며, '25.4분기에는 693명 순유입으로 32분기(8년) 만에 분기 기준 순유입 전환
 - * 분기별 순유입 전환은 경상남도 발표('26.2월) 기준
- 연령별로는 취업 연령대의 순유출이 크게 완화
 - 25~29세 순유출은 '22년 5,313명에서 '25년 1,633명으로 69.3% 감소하였고, 30대는 '24년부터 2년 연속 순유입('25년 584명)으로 전환
 - 잔존 유출은 15~24세(진학·초기 이동 연령, '25년 1만여 명)에 집중되어, 유출의 성격이 '취업 이탈'에서 '진학 이동'으로 이동
- 출생·혼인 지표도 회복: 출생아 수는 '25년 13,810명(5.7%)으로 2년 연속 증가하였고, 합계 출산율은 0.88로 '22년(0.84)을 상회, 혼인 건수도 2년 연속 증가('25년 11,970건)
 - 다만 자연감소는 연 1.3만 명대가 지속되어, 현재 지표 개선이 총인구 증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 있을 전망

04 경남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

가. 기본방향 : 주력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 유지 및 민생경제 활성화

■ 경남 지역의 주력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발전

- 민선 8기 경남 경제성장은 조선·방산·우주항공·원전 등 주력 제조업의 동반 호황이 견인
 - 조선은 고부가가치 선별 수주로 실적을 개선했고, 방산은 K-방산 수출 확대의 생산 거점으로 부상
 - 우주항공청 개청과 SMR·피지컬 AI 국책사업 확정으로 미래 제조업 기반도 확보
- 민선 9기 도정과제도 「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을 첫 번째 도정목표로 제시
 - 최근 성장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지역 산업 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
 - 이를 위한 실천 과제로 제조 AI 전환(G-M.AX), 우주항공수도 도약,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제시됨

- 주력산업의 성과가 기계·금속가공 등 도내 전·후방 산업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만큼,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부문 간 격차 해소를 병행할 필요
- '22년부터 제조업이 견인한 지역경제 성장이 민생경제에 파급될 수 있는 정책방안 필요
- 민선 8기 중 서비스업 성장은 제조업의 3분의 1 수준에 그침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민생 밀접 업종의 생산은 오히려 감소
- 임금 상승도 제조업에 치우쳐 민생 밀접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성장의 과실이 지역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지 않음
- 따라서 민선 9기에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고도화와 함께, 성장의 성과가 고용·임금·소비를 거쳐 서비스업·소상공인으로 이어지는 파급 경로 구축을 병행할 필요
 -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민생경제 기반 확충이 파급 경로의 핵심 고리

나. 부문별 과제

민선 9기 부문별 과제 주요 사업 요약

부문	핵심 사업
제조업	○ 피지컬 AI 혁신기술 개발('26~'30, 1조 원), ○ 함정 MRO 클러스터('26~'30, 985억 원), ○ SMR 혁신제조 국산화('26~'31, 2,569억 원)
투자유치 및 유지	○ 창녕·하동 기회발전특구(1.3조 원), ○ 창업 투자펀드 확충(39개 펀드, 1.1조 원)
소상공인	○ 전통시장 '1시장 1특화', ○ 경남동행론, ○ 공공배달앱 배달비 지원·온라인 전용 상품권
일자리	○ 주력산업 연계 채용 트랙, ○ 행복내일센터 서부권 확대, ○ 광역형 비자 연계 외국인력 정착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 진해신항 배후 첨단도시, ○ 바이오 메디컬 혁신벨트, ○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자료: 경상남도, 「민선9기 도정과제(안)」

■ (제조업) 제조 AI 전환(G-M.AX)과 주력산업 고도화의 병행

- 피지컬 AI 혁신기술 개발사업('26~'30, 1조 원)을 축으로 제조 AI 원천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창원국가산단 등에 제조 AI 혁신밸리를 조성해 앵커·공급기업 육성과 전환 인력 양성을 추진
 - 제조 특화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수도권에 집중된 AI 인프라 격차를 완화
- 조선은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 센터('23~'27, 250억 원)와 조선해양 피지컬 AI 실증을 연계해 M.AX 대전환을 확산
 -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26~'30, 985억 원, 거제·창원·통영·고성)으로 인프라 - 기술개발 - 기업지원 - 인력양성 - 수출지원의 완결형 생태계를 구축
- 원전·SMR은 창원국가산단 제2확장구역에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26~'31, 2,569억 원),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323억 원),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275억 원)를 집적해 개발-제조-검사 원스톱 거점을 구축

- 기계·금속가공은 앞서 확인된 조정 국면에 대응해, 제조 AI 접목과 SMR·합정 MRO 공급망 참여 확대로 재도약 기반을 마련

■ (투자유치 및 유지) 유치 성과의 정착과 특화 산업단지 조성

- 620개 기업·37조 3,267억 원의 유치 성과를 실제 가동과 고용으로 연결하는 사후관리가 우선 과제
- 기획발전특구(창녕 4,485억 원·하동 8,482억 원, 계 1조 2,967억 원)의 미래모빌리티 소재 지구, 이차전지 모빌리티 소재 특구, 밀양 나노국가산단 2단계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시군 산단·특구를 핵심 경제구역으로 육성할 필요
 - 정부의 영남권 첨단 국가산단 신규 조성·메가특구 지정 과정에서 도내 후보지가 반영되도록 입지·기반시설 계획을 사전에 정비
- 대규모 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첨단우주항공 창업기업 인센티브 구역 지정 및 공유공장 확대로 창업 생태계를 지원

■ (소상공인) 제조업 성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소상공인 정책을 비용 완화·상권 활성화·사회안전망의 세 축으로 추진할 필요
- 전통시장은 '1시장 1특화' 육성으로 이용환경 개선과 이색공간 조성을 병행하고,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특화상품·브랜드 개발로 상권 브랜드화를 추진
- 고용·산재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납입 보험료를 지원해 폐업·산재 등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경남 동행론과 원스톱 금융복지 지원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 강화

■ (일자리) 산업수요 기반 생애주기별 일자리 지원 및 조기경보 체계 운영

- 주력산업 원청-협력사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취업자·재직자 임금 보전과 복리후생비 지원을 확대 하고, 청년 근로자 자산 형성·통근 장려금 등으로 정주형 고용 기반을 구축
 -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지역의 인력수요를 지역 노동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원전·방산·AI 등 도내 주력산업 기업과 연계한 채용 트랙을 신설·확대
 - 청년 유출이 진학 연령(15~24세)에 집중된 만큼, 채용 연계 트랙을 도내 대학·직업계고 진학 단계까지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
- 생애재설계 전담기관(행복내일센터)을 창원·양산에서 서부권까지 확대하고, 석탄화력 폐쇄 등 산업 전환 대비 및 시군별 고용상황의 적기 파악을 위한 고용 조기경보체계를 운영
 - 26년 부터 도내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고용위기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해 월간 모니터링을 시범 운영 중
- 조선업 등에서 구조화된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광역형 비자와 연계한 정착·숙련화 지원을 병행해 '단기 충원'에서 '정주 인재'로 전환

■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우주항공·물류·신산업으로 포트폴리오 확장

-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래항공·위성 전주기 산업 허브 구축과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비전을 구체화
- 진해신항 배후단지 개발의 국가계획 반영과 항만배후 첨단도시 조성으로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하고,

김해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을 연계 추진

-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26.7.3, 진주)도 이러한 방향과 부합
 - 도정과제와 정부 구상이 SMR·피지컬 AI·우주항공에서 일치하는 만큼, 발표된 투자 계획을 도내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

참고자료

경남도민일보, "고수익 선박 발주 늘고 마스가 기대감에 훈풍 전망" (2026.02.24.)

경남신문, "조선업 세계 점유율 20%대 회복... 도내 협력사 '낙수효과' 기대" (2025.12.28.)

경남신문, "무너지는 경남 상권, 1층마저 비었다" (2026.07.27.)

경상남도, "세플러코리아 E-모빌리티 핵심부품 공급기지 구축 투자협약 체결" (2023.03.09.)

경상남도, "SK오션플랜트 투자협약 체결" (2023.11.07.)

경상남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보도자료 (2024.06.20.)

경상남도, "미래 모빌리티 분야 투자협약 체결" (2024.09.19.)

경상남도, "주력산업 선도기업 투자협약 체결" (2025.02.13.)

경상남도, "신성장 동력산업 3개 기업 투자협약 체결" (2025.04.10.)

경상남도, "한화오션 등 4개 기업 투자협약 체결" (2025.07.16.)

경상남도, "피지컬 AI·SMR 혁신제조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2025.08.25.)

경상남도, "2025 경상남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2025.10.28.)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신년 간담회 개최" (2026.01.16.)

경상남도, 투자유치 실적 내부자료 (2026.06월 말 기준.)

경상남도, "경상남도 민선9기 도정과제(안)" (2026.07.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2025.08.22.)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조사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데이터처, 분기별 지역내총생산(실질 기준, 실험적 통계)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실질 기준)

국토교통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2023.03.15.)

녹색경제신문, "[2025 결산] K-방산, '글로벌 강자'로 우뚝" (2025.12.25.)

뉴스프리존, "박완수 지사,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보고회 참석" (2026.07.06.)

법무부,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관련 통계 (2026.03.)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4.06.20.)

산업통상자원부, "미래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4.12.26.)

서울신문, "경남에 쏟아진 첨단산업 투자" (2026.07.03.)

스트레이트뉴스, "두산에너지빌리티, 원전 등 발전 수주잔고 23조" (2026.04.22.)

시장경제신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영업익 1조 돌파... KAI, AI 반도체 개발" (2026.08.)
재정경제부,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2026.07.03.)
진주시, "우주항공국가산단(진주지구) 투자협약 체결" (2025.10.28.)
창원특례시, "창원국가산단 2.0(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2023.)
청년일보, "조선 3사, 수주잔고 기반 '풀가동'" (2026.03.29.)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한국은행 경남본부·경남신용보증재단, "2026 경남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포럼 발표자료" (2026.05.19.)
헤럴드경제, "현대차그룹, 울산·대구·창원 '첨단산업 벨트'로" (2026.07.03.)

발행일	2026년 8월 31일
발행인	김인수
편집인	곽소희
집필인	윤종철·박예은
발행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5140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 본 간행물을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 「경남 산업·경제동향」의 내용 및 편집에 관한 의견과 제안이 있으시면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 경제분석센터 (T.055-230-2805, 28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간행물은 메일링 서비스(<https://www.giba.or.kr>) 신청을 통해서 정기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